

윤시윤 “데뷔 후 10년, 나에 대한 검증의 시간”

최근 종영 드라마서 극과 극 오가는 열연에 호평



배우 윤시윤이 데뷔 후 10년의 시간 동안 활동을 이어온 것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윤시윤은 13일 오전 서울 논현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tv N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극본 류용재 김환재 최성준/ 연출 이종재) 종영 인터뷰에서 데뷔 후 10년의 시간을 지나온 것에 대해 소회를 전했다. 지난해 데뷔 10주년을 맞았던 윤시윤은 그 과정을 되돌아보며 “너무 감사했다”라며 “나에게 10년은 처음에 예상처럼 너무나 말도 안되는 복을 받고 데뷔했다. ‘거침없이 하이킥’과 ‘제빵왕 김탁구’를 연달아 했으니깐, 저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이 행운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어떤 기회에서는 검증

을 못 받은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감사한 것은 지금도 검증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밝히며 “어느순간에는 검증이 끝날 거다. 그 때 이 친구는 그만해야겠다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렇기에 윤시윤은 더욱 스포어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주제 넘은 말일 수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부분이 된다는 것들, ‘이러한 부분도 조절을 해왔다’에서 만족을 해야하는 것 같다”라며 “이거를 평가해보시고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이 되는구나를 보고 기회를 맡기는 게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함께 일하셨던 감독님에게서 다시금 힘이 들 어올 때가 있다. 그게 최소조건

은 맞추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윤시윤은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깐 부족하지만 받아주는 거다”라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건 되게 다른 뜻이다. 제일 목표는 최고의 감독님들과 연기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찾아준 분들과 다시 하는 것도 최고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윤시윤은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를 통해 시청자들이 느꼈으면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사실 저는 ‘사이코패스 다이어리’가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며 “누구나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은 그냥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사람을 저를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다.

덧붙여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다. 육동식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는 어쩌다 목격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도망치던 중 사고로 기억을 잃은 후 호구 육동식(윤시윤 분)이 우연히 알게 된 살인 과정이 기록된 다이어리를 보고 자신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라고 착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지난 9일 종영했다.

윤시윤은 극 중 증권투자사 말단으로 입사해서 몇년째 허드렛 일만 맡고 있는 호구 육동식 역을 맡았다. 육동식은 어느날 갑자기 기억을 잃고 사이코패스 서인우(박성훈 분)의 살인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를 주운 뒤 자신을 사이코패스라고 착각하게 되는 인물이다. 윤시윤은 마음 여리고 소신한 세젤호구(세상에 제일 가는 호구)로 시작해 정제 착각 시기를 거쳐 용감한 육동식으로 재탄생하기 까지 극과 극을 오가는 온도차 열연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영화 ‘백두산’ 개봉 26일째 800만 돌파...장기 흥행

쟁쟁한 할리우드 신작 공세에도 입소문 열풍

영화 ‘백두산’ (이해준 김병서)이 개봉 26일째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 통계를 보면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백두산’은 누적관객수 800만675명을 기록하며, 800만을 넘어섰다.

이처럼 ‘백두산’은 ‘닥터 두리틀’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등 쟁쟁한 할리우드 신작 공세에도 입소문 열풍에 힘입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장기 흥행에 기대감이 모아진 다.

한편 ‘백두산’은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만남,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소재와 참신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하는 ‘백두산’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김요한, 엑스원 해체 후 배우 데뷔?

“‘학교2020’ 출연 제안은 맞아...결정 된 것 없어”

그룹 엑스원 멤버였던 김요한이 드라마 데뷔를 검토 중이다.

13일 김요한 측 관계자는 뉴스1에 “KBS 2TV ‘학교2020’ 출연을 제안받은 것은 맞다”며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2020’은 1999년부터 시작된 KBS의 대표 브랜드 드라마인 ‘학교 시리즈’의 8번째 드라마다. 20여년 간 시리즈를 이어오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학생들의 고민과 학교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다뤄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

다. 특히 다수의 청춘스타들을 배출한 스타등용문으로 불린다. 장혁 조인성 공유 김민희 하지원 이종석 남주혁 김우빈 장동윤 등이 ‘학교’를 통해 인기를 얻었다.

이에 김요한 역시 ‘학교’의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요한은 지난 7월 중영 Mnet ‘프로듀스X101’에서 1위에 오르며 그룹 엑스원으로 데뷔했다.

그러나 종영 후 제작진이 투표 수 조작 논란에 휘말리며, 결국 지



난 6일 해체했다.

엑스원 멤버들의 향후 활동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요한이 배우로 활동을 재개한다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5년 유방암 투병’ 전해진 측 “지난해 12월 완치판정”

최근 SBS 드라마 ‘VIP’ 출연으로 10년 만에 연기 복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전해진(50)이 5년간 유방암 투병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완치판정을 받았다. 전해진의 한 측근은 13일 뉴스1

과 통화에서 “전해진이 약 5년간 유방암 투병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해진은 지난 1991년 미스코리

아로 데뷔해 예능MC와 드라마를 오가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하다 지난 2008년 결혼 후에는 오랜 휴식을 가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유방암 선고를 받았고 치료에 매진해왔다. 이후 지난해 SBS ‘VIP’를 통해 10년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건강 회복과 함께 방송에 복귀한 전해진은 앞으로도 연기 활동과 개인 사업을 병행하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호남신문
전화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2관	닥터 두리틀
3관	스타워즈: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4관	백두산
5관	미드웨이
6관	시동
7관	백두산
8관	닥터 두리틀, 스타워즈: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더빙)타발루가와 얼음공주
9관	닥터 두리틀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닥터 두리틀, 신비아파트 극장판, 타발루가와 얼음공주
2관	백두산, 천문·하늘에 묻는다, 시동, 눈의여왕4
3관	닥터 두리틀
4관	백두산
5관	닥터 두리틀, 미드웨이, 천문·하늘에 묻는다, 겨울왕국2 신비아파트 극장판
6관	스타워즈-라이브 오브 스카이워커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